빛을 쥐다

책상에 흰 노트를 펴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한없이 부러웠다는 김방락 아너. 초등학교 이후 못다한 학업의 꿈을 만회하려는 듯 퇴직한 후부터 대학교 경비원으로 일해왔다. 늦은 밤 손전등을 들고 학생들과 캠퍼스를 살피는 김방락씨의 마음을 닮아서인지 그 빛은 유독 따뜻하고 부드럽다. 하루도 꺼지지 않았던 손전등 빛처럼 한줄기 희망이 되고자 월급을 모았고 10년이 되던 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선뜻 기부금을 전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4년 후, 김방락씨가 또 한 번 뜨거운 불빛을 손에 쥐었다.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 것이다. 소외와 빈곤으로 어두워진 마음과 외로운 세상 곳곳에 희망을 전하겠다는 김방락 아너. 그의 뜨거운 사랑이 많은 이의 가슴에도 화락 옮아 붙길 바란다.

사랑의열매 2018 02

사랑의열매

Issue 130 \ February 2018 02

평창올림픽 성화 주자 **김방락 아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18나눔캠페인
100도 달성 고맙습니다

©일러스트 이철원

처음엔 언제나

누구에게나 '첫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본다는 것은,
언제나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한편으로는 무섭고 떨리기도 하지만,
'첫 경험'은 언제나 설레고, 특별한 감동을 줍니다.
처음 학교에 들어갔던 순간, 처음 짝꿍을 만났던 순간,
처음 비행기를 탔던 순간, 처음 사랑에 빠졌던 순간,
처음 선생님께 혼났던 순간, 처음 시험에서 떨어졌던 순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무수한 '첫 경험'은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으로 기억되기도 하고,
긴장되고 떨렸던 순간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 '첫 경험'의 기억이 쌓이고 쌓여
인생의 큰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나눔도 첫 경험이 필요합니다.
떨리기도 하고 긴장돼 첫 경험을 미루기도 하지만,
그 첫 경험의 기억이 행복하게 다가와
더 큰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첫 경험', 어떤 기억이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Cover

10년간 경비원 월급을 모아 1억 원을 기부하면서 기부의 참의미를 알려준 김방락 아너. 그가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주자로 나서 서울 시내를 달리며 올림픽의 성공과 나눔의 가치를 전했다.

목차

08
First Person
평창올림픽 성화주자로 나선 김방락 아너

12
특집
희망2018나눔캠페인 피날레

20
화제
경기북부 여성 CEO 3명 아너 탄생

21
현장
창원 LG세이커스의 '사랑의 좌석 나누기'

22
나의 나눔 이야기
기부는 일상… '일상으로의 초대'

24
착한기업
신한금융그룹

30
착한일터
삼성엔지니어링

32
착한 가게가 있는 풍경
강원 강릉

36
희망스토리
발달장애 그들이 선생님 되다

38
더 페이지
2017년 사랑의열매 TV 광고 이야기

40
Alive Chest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4
나눔 리포트
'기부금 세금 혜택 확대' 솔로몬식 해법 있을까?

46
모금회 뉴스
중앙회 · 전국 17개 지역별 소식

55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58
독자 페이지

사랑의열매 vol. 130 2018 / 2

발행인 허동수
발행일 2018년 2월 / 통권 130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9 사랑의열매 회관 5층
만든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외홍보본부
구독안내 tel 02-6262-3000 fax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 편집디자인 조선뉴스프레스 tel 02-724-6783
인쇄 (주)타라TPS tel 031-939-2049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 · 복제를 금하며,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상에서 가장 큰 열매가 희망을 밝힙니다

사랑의열매는 개인기부 33만 명, 착한가게 20,000곳,
아너 소사이어티 1,600회원과 기업 25,684개의 참여로
매년 더욱 풍성하게 열립니다.

질병지원 797억

- 보건·의료 622억
- 심리·정서 175억

빈곤지원 3,749억

- 기초생계 2,580억
- 교육·자립 846억
- 주거·환경 323억

소외지원 907억

- 사회적돌봄 388억
- 소통·참여 328억
- 문화격차해소 191억

201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 **5,453억 원**(86만 건)은 국내 10대 자선단체와 모금기관의 **국내 공익사업비** 지출 1조 600억 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출처_한국가이드스타〉

- 1억원 이상 개인기부 **아너 소사이어티**
- 수익금 일정액 정기기부 **착한가게**
- 급여일부 정기기부 **착한일터**
- 매월 가족이름으로 정기기부 **착한가정**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97년 제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 모금 전문 기관입니다.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가장 투명한 기부금 관리, 공정한 지원절차로 대한민국의 민간 복지를 이끌고 있습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기부

지금, 돌아봐주세요

생각보다 가까이, 돌아보면 더 많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임 윤 아 아너 소사이어티 713호 회원

기부상담 080-890-1212 | ARS 기부 060-700-1212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빈곤,소외,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돕기 위해 세워진 법정 모금 지원 기관입니다.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가장 투명한 기부금 관리, 공정한 지원절차로 대한민국의 민간 복지를 이끌고 있습니다.

글 김가린 **사진** 이종민

보통 사람의

평창올림픽 성화 주자로 나선 **김방락** 아너

특별한 질주

10년간 경비원으로 일하며 모은 1억 원을 선뜻 기부했던 김방락 아너. 그의 나눔 스토리는 누구나 기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며 국민들 가슴 속에 사랑의 불씨를 지폈다. 그리고 2018년, 그가 다시 한 번 나섰다. 미래를 밝히는 성화를 들고 올림픽의 성공과 나눔의 가치를 외친 것이다.

한파가 잠시 비켜가던 지난 1월 13일, 김방락 아너의 얼굴에 호기심 가득한 소년처럼 미소가 피었다. 생애 처음으로 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달리게 된 것이 낯설고 신기해서다. 전국을 누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화봉송 주자는 총 7,500명. 이날은 서울 성화봉송 1일 차로 상암동 디지털매직스페이스에서 출발해 종로와 동대문, 용산 등을 거쳐 광화문까지 23.4km를 이어갔다.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프로필의 성화봉송 주자 가운데 올해 일흔한 살을 맞이한 고령의 러너, 김 아너는 단연 눈에 띌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젊은 주자들 가운데서도 그는 절대 기죽지 않았다. 15년 가까이 경비 업무를 하며 쌓은 생활 체력, 월남전 참전 용사이자 전국 아너 소사이어티 대표라는 자신감 덕분이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린 김 아너에게 성화의 불꽃이 이어졌다. 추운 겨울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불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10년간 자신을 다독였던 김 아너의 강인한 의지를 닮았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지금 미래를 밝히는 성화가 들려 있다.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부근을 달리는 동안 많은 시민은 그를 기부천사라 부르며 응원했다. 김 아너의 뜻깊은 도전 스토리는 계절처럼 차게 식은 국민들 가슴 속 사랑의 온도를 높일 것이다. 그래선지 달리는 내내 그의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올림픽 통해 국민들 단합할 계기 맞아”

“평창올림픽을 통해 우리 국민은 또 한번 단합할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국위 선양은 경기장을 누비는 올림픽 선수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내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는 모두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너가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에요.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어요. 당장 오늘 로또에 당첨된다고 해도 저는 그 돈을 모두
기부할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고 제가 행복해지는 일이니까요"

한성대 경비원으로 일할 때의 모습.
김방락 아너는 이 학교 경비원으로 12년간 일하며 모은
1억 원을 기부하며 아너 회원이 됐다. ©조선일보

2014년 짠돌이 경비원 김방락씨는 아너에 가입하면서, 고액 기부는 성공한 기업인만이 하는 것이란 인식을 깨고 누구든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당시 한성대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던 그의 월급은 120만 원. 1억 원을 모으기 위해 10년 동안 한 달에 약 100만 원씩 적금을 들었다. 김 아너의 기부 소식을 듣고 나서야 주위 동료들은 동전 하나 허투루 쓰지 않았던 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전북 정읍의 가난한 농부 아버지를 두었던 김방락 아너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을 몸소 겪었다. 초등학교를 간신히 마치고 스무 살에 군입대를 했다. 적지에 낙하산을 타고 침투하는 공수특전단으로 8년간 군생활을 했다. 특전단 시절에는 베트남전에 참전하며 몇 번의 죽을 고비도 넘겼다. 1974년 아픈 몸을 이끌고 제대했지만 가난은 쉽게 떨칠 수 없었다. 공사판을 전전하며 생활을 이어갔고 장사도 해봤지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적 여유가 없던 이 시기에 이웃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은 꽃피기 시작했다.

"어렵게 살아보니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볼 때면 얼마나 힘들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돕고 싶은 마음은 절로 생겼지요. 꼭 그들을 위해 기부하리라 마음먹었어요. 경비원으로 취직하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아너 가입을 위한 목표액이 채워졌을 때 그는 결심이 흔들릴까 봐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단다. 그리고 2014년 11월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서에 서명했다. 몇 해 전 우연히 신문으로 접한 아너 가입이 평생의 숙원 사업이 된 이후부터 그는 생활 속 작은 기부들을 실천해 왔다. 은행이나 관공서의 모금함이 보이면 적은 금액이라도 꼭 기부하고, 지역 내 어려운 이들을 돕는 자선활동이라면 나서서 물건을 구매했다. 작은 기부로 마음을 단련시켰기 때문에 1억 원이라는 큰돈을 선뜻 내놓을 때도 후회 없이 행복했다.

"나눔은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저지르세요"

김 아너는 지금도 숭의여대 경비원으로 일한다. 아너가 된 이후에도 그는 꾸준히 기부금을 모으고 있다. 나눔이 습관이 돼 한시라도 쉴 수 없다고 말한다. 2018년 새해를 뜻깊은 성화봉송으로 시작한 소감을 물으니 기부를 위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더 기쁘단다. 역시 김방락 아너다운 대답이다.

1억 원을 기부한 이후 그는 스스로를 마음 부자라 부른다. 김 아너의 마음 곳간이 돈이나 쌀로 가득 채워져서가 아니라 욕심과 헛된 바람 대신 비울수록 행복이 들어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너가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에요.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어요. 당장 오늘 로또에 당첨된다고 해도 저는 그 돈을 모두 기부할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고 제가 행복해지는 일이니까요."

그에게 행복이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국민 모두에게 돕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말라고 권한다. 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는 없을 것이다. 누구나 서로 돕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다. 하지만 나눔을 실천하기 어려운 건 내 형편을 남들과 비교하고 계산하기 때문일 것이다. 4년 전 아너 가입을 결정했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김 아너는 마음이 시킨다면 주저 없이 실행하라고 말한다. 자신이 사랑의 보증인이 되어줄 거라며 말이다.

"나눔은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저지르세요. 그 이후 찾아오는 행복은 상상 이상일 거라 확신합니다. 가슴 속에 맘껏 누려도 줄지 않는 행복의 회수분이 들어찰 거예요."

특집

글 김정아 사진 양수열, 이신영, 조현호, 공동모금회

사랑의 온도 100도 만든 그대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연말연시집중모금캠페인이 73일간의 나눔릴레이를 펼치고 1월 31일 막을 내렸다. 순직한 아들과 아내에 가입한 전직 소방관부터 10년째 기부하고 있는 쪽방촌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그 어느 해보다 감동적이고 따뜻한 나눔이 넘쳐났다. 전국 각지에서 사랑의 온도 100도가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탠 나눔 주역들을 만나본다.

대구, 1월 17일 사랑의 온도 100도 첫 달성

전국 17개 지역에 세워진 사랑의온도탑 중 가장 먼저 100도를 달성한 곳은 대구였다. 지난 1월 17일 대구 공동모금회는 92억 8,000여만 원을 모금, 캠페인 목표 모금액인 92억 100만 원을 돌파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랑의온도탑이 100도를 넘었다. 지난해 11월 20일 캠페인을 시작한 지 58일 만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모금액 83억 8,000만 원에 비해 11% 증가했다. 이처럼 사랑의 온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예년보다 추워진 날씨와 기부 한파 소식을 접한 시민들과 기업들이 함께 나눔에 동참하고자 나서면서 가능해졌다.

우리텍은 대구 공동모금회 역대 최고액인 10억 원(5년 약정으로 총 50억 원)을 기부하며 사랑의 온도를 11도나 높였고,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도 나눔에 동참했다. 한국감정원도 캠페인 시작과 동시에 9억 2,000만 원을 기부하며 10도를 올렸다. 이 밖에도 DGB금융그룹, 화성산업, 희성전자 등 향토 기업들이 기부에 참여하면서 나눔을 확산시켰다.

개인 기부자들의 참여도 눈에 띈다. 총 23억 여 원이 모금돼 전체 기부액의 24.8%를 차지할 만큼 나눔에 적극 동참했다. 6년 연속 기부하고 있는 키다리 아저씨를 비롯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도 9명이나 탄생했다.

함인석 대구 공동모금회장은 "100도 달성에 마음을 모아주신 기부자 등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채보상운동의 나눔 정신이 깃든 대구시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바데르 주한 쿠웨이트 대사
온도탑 옆 사랑의우체통에 기부

지난 1월 12일 한낮에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로 주위의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광장에 위치한 사랑의우체통 앞에서는 특별한 성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바로 바데르 모하마드 알-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가 캠페인에 동참하며 우체통에 성금을 기부한 것이다.

쿠웨이트 대사관은 원래 용산구에 위치해 있는데, 최근 공사로 임해 임시적으로 종로구로 이전했다. 이에 바데르 대사는 출퇴근길이나 외부 일정이 있을 때면 광화문광장을 지나곤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사랑의온도탑을 보고 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희망2018나눔캠페인'에 대해 알게 됐다. 평소에도 기부활동을 일상의 한 부분이라 여기며 자주 해왔던 바데르 대사는 모금 캠페인에 대해 알게 되자마자 기부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직접 사랑의우체통에 기부를 했다.

바데르 대사는 "매주 금요일마다 집에 만들어 놓은 작은 모금함에 가족 각자 기부를 한다. 어느 정도 기부금이 모이면 아프리카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보낸다. 쿠웨이트에서는 전통적으로 나눔 문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랑의온도탑은 한국의 나눔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 무척 인상깊었고, 이러한 나눔문화에 동참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온도탑은 '시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기부를 떠올릴 만한 상징물을 세우자'는 공동모금회 직원의 아이디어로 2000년 서울시청 광장에 첫선을 보였다. 이후 2011년부터 현재의 광화문광장으로 옮겨져 매년 시민들에게 나눔을 전하고 있다.

전직 소방관 강상주씨, 순직한 아들과 함께 새해 첫 아너 가입

2018년 새해가 되자마자 부자(父子) 아너가 탄생하면서 나눔을 이어갔다. 무엇보다 기부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1월 2일 전직 소방관 강상주씨는 서울 사랑의열매 회관을 방문해 자신과 아들 고(故) 강기봉(당시 29세)씨 이름으로 2억 원을 전달하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아들 강기봉씨는 울산 온산소방서 소속 119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년 10월 태풍으로 불어난 강물에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던 중 순직했다.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한 후 아버지의 뒤를 이어 2015년 4월 울산 구급대원으로 합격, 수많은 구급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펼쳤다. 아버지 강상주씨는 31년간 제주도에서 소방관으로 재직한 후, 2014년 6월 정년퇴직했다. 근무 중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힘쓴 공로로 훈장을 받을 만큼 모범적인 소방관이었다.

강상주씨는 "119대원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다가 떠난 아들을 기리는 방법을 찾던 중 가족과 상의를 해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결심했다. 처음에는 아들의 이름으로만 기부할까 생각했지만, 이웃을 위해 헌신한 아들과 뜻을 같이하고자 나란히 아너 회원으로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 부자의 아너 가입은 소방관으로는 첫 번째 아너 회원이며, 가족 회원으로는 171번째로 등록됐다.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 올 첫 부부 아너로

2018년 첫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도 탄생했다. 지난 1월 10일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과 부인 조영수 경기대 명예교수가 아너로 가입하면서, 133호 부부 아너로 이름을 올렸다. 김 회장은 "나눔은 사회를 통합시키는 촉매라고 생각하며 우리 부부의 작은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앞

으로도 기업인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따뜻함을 전하고 온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활동을 펼치겠다"며 가입 소감을 전했다. 김동녕 회장이 이끌고 있는 패션문화 전문기업 한세예스24홀딩스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책나누기 캠페인, 사랑의 연탄나눔 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7년째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인 홍승성 큐브엔터테인먼트 회장도 아너로 가입하며 나눔의 온도를 높였다. 홍 회장은 당초 기부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 했으나 나눔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변의 권고로 공개를 결정했다. 홍승성 회장의 기부금은 저소득층 희귀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10회째 어김없이 성금 기부한 인천 쪽방 거주민들

올해도 서울 사랑의열매 회관에는 반가운 이들이 찾아왔다. 바로 인천 만석동 등 쪽방 거주민들이 정성스럽게 모은 성금을 들고 찾아온 것이다. 이들의 기부 참여는 벌써 10회째로, 총 1,250만 원을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쪽방 거주민들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31일까지 26일 동안 만석동 주변의 쪽방 상담소·무료 급식소·노숙인 쉼터 등에 모금함을 비치했다. 모금함에는 시설 이용 노인과 노숙인들이 볼펜 등을 만들어 얻은 수익과 폐지를 판 돈 등이 모였다. 인근의 인현동과 북성동, 계산동 쪽방 거주민들도 동참하면서 160여만 원을 기부했다. 주민대표로 참석한 이정성씨는 "많은 분의 도움을 통해 쪽방촌 주민들이 작게나마 일도 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면서 많은 감동을 받는다. 도움을 받으며 늘 감사하던 중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돕고 싶어 기부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의리' 김보성
시각장애인 위해 2,000만 원 기부

2005년부터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김보성씨가 지난 1월 4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부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학창시절에 왼쪽 눈을 다쳐 시각장애 6급이기도 한 김씨는 2016년 12월 소아암 어린이를 돕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격투기 경기를 하다가 오른쪽 눈 주위 뼈가 부러진 적도 있다.
김보성씨는 "경기에서 오른쪽 눈까지 다치며 3분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시각장애인의 처지를 뼈저리게 이해하게 됐다. 시각장애인의 처우와 인식개선 그리고 권익 향상을 위해 '나눔의리'를 대중께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보성씨는 2014년 9월 남자 연예인 최초로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해 나눔문화를 알리고 있다.

조영숙 할머니는 평생 모은 전 재산 5,000만 원 내놔

©인천일보

평생 힘들게 모은 자신의 전 재산 5,000만 원을 기부한 할머니의 나눔 이야기도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준다. 올해 84세로 인천에 살고 있는 조영숙 할머니는, 22세 어린 나이에 얼굴도 모른 채 결혼했는데 남편은 결핵환자였다. 병수발을 들며 어린 동생들까지 돌봐야 했기에 식모살이부터 연탄배달, 식당일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 먹을 것이 없어 일주일간 물만 먹어 얼굴이 퉁퉁 붓기도 했다. 평생을 나보다 남이 먼저였던 조 할머니에게 나눔은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중에도 봉사단 활동을 했고, 주말이면 양로원을 찾았다. 그리고 평생 이루고 싶었던 '기부'를 실천했다. 조 할머니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때문에 초등학교를 중퇴했다. 그것이 평생 한이 돼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부했다"고 말했다. 기부를 하고 난 뒤, 10년간 의존했던 우울증 약도 끊고 오히려 건강해졌다는 조영숙 할머니. 할머니는 이제 자신이 할 일은 다 했으니, 사는 날까지 그저 열심히 베풀다 가고 싶다는 바람을 비쳤다.
파지를 팔아 모은 70만 원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뜻 내놓은 기부자도 있다. 울산에 살고 있는 77세 조무웅씨는 1kg당 130원을 받는 파지를 팔아 성금을 마련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기부를 결심한 것은 바로 20년 전 교통사고로 장애판정을 받은 큰아들 때문. 가족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아들을 보며, 더 힘든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돕고 싶어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별한 날,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준 나눔

경북 포항의 민병호·김민정 부부는 특별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 부부는 결혼식과 웨딩촬영, 폐백 등을 간소화하거나 취소하고 그 비용을 공동모금회에 기부해 경남 2호 나눔결혼식의 주인공이 됐다. 신랑 민병호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어렵던 경험이 있어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조금은 안다. 나만 잘살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고, 순수하게 남을 돕게 되는 순간 그것이 기쁨과 행복으

10회째 캠페인에 동참해 기부한 인천 쪽방 거주민들

로 다가온다"라며 기부를 결심한 이유를 전했다.
경북 지역에서는 새해를 맞아 최연소 기부자도 탄생했다. 경북 공동모금회에서는 자녀의 출산, 100일, 첫돌 등 가장 소중한 날을 맞아 부모가 아기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아기 첫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11일 이직·윤이나 부부는 둘째 아들의 첫돌을 기념해 성금 200만 원을 이송원·이송민 두 아들의 이름으로 기부했다. 어머니 윤이나 씨는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새해 선물을 준 것 같아 행복하다. 앞으로도 작은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화목하고 인심 넉넉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경북에서는 영천시 박철민·조영남 부부가 아들 박정우 군의 첫돌을 기념해 기부하면서 새해 최연소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 · 제주 · 무안 · 보령 등에서 어린이들 저금통 줄이어

지난 1월 19일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너랑나랑지역아동센터 아이들 30여 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묵직하게 채운 저금통을 들고 전남 공동모금회를 방문했다. 저금통에는 아이들이 직접 나눔바자회를 열어 마련한 수익금으로 가득했다. 바자회를 통해 모금한 성금은 총 60만 9,000원. 센터 아이들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학용품·장난감·신발·책·의류 등 물품과 어른들의 도움으로 직접 만든 김밥 등 먹거리를 판매해 기부금을 마련했다.

전남 너랑나랑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부를 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제주에서도 한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저금통을 들고 찾아와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1월 17일 김도연·김유준 형제는 1년간 용돈을 모아 마련한 저금통 5개를 기부했다. 김도연 군은 "동생과 모은 저금통으로 어려운 친구들과 어른들을 도울 수 있다니 행복하다. 다음 겨울에도 가족과 꼭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이날 아이들의 저금통과 함께 아버지 김성윤 알뜰농수산 대표도 100만 원을 기부해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
이 밖에도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대한어린이집(원장 한혜련)에 다니는 94명의 아이들이 1년간 저금통에 모은 68만 30원을 기부했고, 서울 중랑구는 지역 내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원아들이 1년 동안 모은 '사랑의 돼지 저금통'을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경기고 72회 동창들, 세상 떠난 친구 이름으로 기부

1월 15일 경기고등학교 72기(1976년 졸업) 1학년 4반 동창회 '두터비'가 5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며 추모했다. 10명으로 구성된 '두터비'는 평소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비용을 모으고 있었는데, 지난해 환갑을 맞아 통장을 정리하던 중 고 이구호씨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에 동창들은 이구호씨의 이름으로 135만 원을 기부하며 공동모금회의 개인모금 프로그램인 '나눔리더'에 친구의 이름을 올렸다. 두터비 회원들은 "구호를 추모하기 위해 그의 이름으로 기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이씨는 고인으로는 처음으로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자식 잃은 슬픔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 큰 사랑으로 승화한 아버지도 있다. 충북 영동군에 사는 김오봉씨는 지난해 8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아들의 장례식 부의금 중 장례비용을 뺀 전부를 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김씨는 "크나큰 아픔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이웃과 선후배의 도움으로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 이런 격려와 선의를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의 희망을 위해 쓰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희망 메시지 가득한 광화문 사랑의우체통

'사랑의온도탑'만큼이나 나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사랑의우체통'. 지난 2014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처음 설치된 사랑의우체통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매일 아침마다 사랑의우체통을 확인하는 강대호 · 전중건 인턴 직원은 시민들이 사랑의열매 엽서에 남긴 나눔 메시지를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다고 말한다. 특히 삐뚤빼뚤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글씨체지만, 정성껏 꾹꾹 눌러쓴 아이들의 엽서는 왠지 모를 뭉클함마저 준다. 사랑의열매 블로그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공동모금회에 관심이 생겨 인턴까지 지원했다는 강대호씨는 "아이들의 엽서를 보며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나눔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꼭 기부가 아니더라도 엽서를 쓰면서 아이들은 나눔에 대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봤을 것이다. 사랑의우체통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좀 더 편하고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한다.
사랑의우체통은 모금함으로써의 역할도 한다. 지난해 12월 우체통에서는 5만 원권 지폐로 500만 원이 든 흰 편지봉투가 발견됐다. 봉투에는 아무런 글도 적혀 있지 않았고, 별도의 편지나 쪽지도 없었다. 2014년 12월 1,000만 원의 익명 기부에 이어 2016년 1월 300만 원, 그해 12월 500만 원 등 해마다 사랑의우체통에서 거액의 기부금 봉투가 발견되고 있다. '저희 가족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모은 돈입니다. 힘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엽서와 기부금을 우체통에 넣은 가족도 있고, 누가 넣었는지 알 수 없는 동전과 지폐들도 수북하게 쌓여 사랑의온도를 높였다.
우체통에서 거액의 익명 기부금 봉투를 발견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는 전중건씨는 "익명 기부자에 대한 뉴스는 많이 접했지만,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더 떨리고 감동적이었다. 밤새 쌓인 동전이나 천 원짜리 지폐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랑의우체통은 우리 사회의 희망을 말해주는 것 같다"며 의미를 전했다.

글 김정아 사진 공동모금회

경기북부 여성 CEO 3명 아너 탄생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북부사업본부에 희망2018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3명의 여성 CEO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사랑의 온도를 높였다. 주인공은 박창숙㈜창우섬유 대표, 김홍매㈜동원피닉스 대표, 박미희 도미솔식품 대표다.

지난해 12월 19일 가장 먼저 아너로 가입한 박창숙 대표는 캠페인이 시작된 후 탄생한 첫 아너 회원이기도 하다. 국내 편직업계 최초의 여성 CEO이자 국내 1호 여성 환편기(섬유기계) 공장장이었던 박 대표는 자신의 아너 가입을 통해 더 많은 여성 경제인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여성 기업인의 연이은 아너 가입

박창숙 대표의 바람은 곧이어 이뤄졌다. 1월 2일 가입한 김홍매 대표는 평소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들을 지원해 왔는데,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나눔을 위해 고민하던 중 박창숙 아너와 서재원 아너의 권유로 가입을 결심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딸 김영화 휴림 대표가 지역 내 최연소 나눔리더에 가입한 것도 계기가 됐다.

1월 16일 가입한 박미희 대표는 파주시 여성 아너 1호로, 그동안 파주상공회의소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다양한 참여를 해왔다. 박 대표는 가입식에서 "도미솔김치를 찾아주시는 고객의 사랑을 지역사회 나눔을 통해 보답하고 싶었다. 나눔문화가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길 바란다"며 가입 소감을 전했다.

이로써 경기북부 지역에는 총 28명의 아너 회원이 있으며, 고양 11명, 남양주 2명, 파주 4명, 양주 4명, 포천 2명, 가평 1명, 구리 1명, 의정부 2명, 익명 1명이 가입돼 있다.

글 김정아 사진 공동모금회

창원 LG세이커스의 '사랑의 좌석 나누기'

"오늘부터 농구팬 됐어요"

경남 창원시가 연고지인 프로농구팀 LG세이커스는 홈경기를 벌일 때면 특별한 손님을 초대한다. 2011년부터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이용자를 초청,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없는 이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즐거움을 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이번 시즌에도 LG세이커스의 나눔은 계속되고 있다. 오는 3월 10일까지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홈경기 때마다 50매씩 기부할 계획이다.

지역 청소년 대상 홈경기 때마다 50매 기부

아이들이 한 번도 농구장에 간 적이 없어 신청하게 됐다는 1318지역아동센터 김미령 센터장은 "남학생들의 경우 TV로 종종 농구경기를 보기도 하지만, 여학생들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경기장에 직접 오니 오히려 여학생들이 더 열심히 응원을 하더라. 오늘부터 농구팬이 되기로 한 아이들도 있다. 방학이 됐지만 특별히 할 것이 없었는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LG세이커스는 티켓 나눔 이외에도 자선경매 등 다양한 이벤트 기부를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6일에는 김종규 선수가 경남 최초로 나눔리더 1호로 가입하는 등 구단뿐 아니라 선수 개별적으로도 나눔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글 윤미영·조지훈 부부 사진 제공 울산 중구 그림 셔터스톡

기부는 일상
“일상으로의 초대”

8년 전 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이 되면서 문득 ‘이젠 아이들도 커가니 기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주관이 생기는 시기이고,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것이 어른이 돼서도 이어진다는 생각에 남편과 상의 끝에 현금 10만 원과 쌀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기부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맡겨 쌀은 저소득가정에, 그리고 현금은 학생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다.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때 날짜에 맞춰 잊지 않고 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을 키우고 일을 하다 보니 가끔씩 정해진 날짜보다 늦게 기부를 하기도 했다. 꼭 그 날짜에 맞춰 기부를 해야 한다고 누군가 강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다리고 있을 그 누군가에게 너무 미안하고 큰 죄를 지은 것마냥 스스로 반성도 많이 했다. 매일 먹는 밥을 먹지 않으면 허전한 것처럼, 어느덧 기부도 우리 부부에게 일상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한번은 기부금을 받았던 어떤 분이 봉투를 들고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를 한 적이 있었다. 살아오면서 그 순간만큼 미안하고 부끄러웠던 순간이 없었다. 너무나 적은 금액인데, 우리가 이런 인사를 받아도 될까 싶어서 한없이 미안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부를 하면서도 큰 금액이 아닌데 과연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금액이라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했다.

기부를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 등 지원이 필요한 곳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를 지나가다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봤다. 기관이나 대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나서 올해는 그곳에 100만 원을 전달했다. 그리고 좀 더 전문기관을 통하면 우리가 놓치는 이웃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울산 공동모금회를 통하게 됐다.

우리 부부는 힘닿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기부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들고 있다. 우리 역시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아서 한번에 100만 원을 내는 것은 부담이 된다. 나눔이 부담스러워지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매달 10만 원은 외식 한두 번 안 하면 되는 금액이다. 나눔은 꼭 큰 것을 갖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작게 시작하면 된다. 시작이 힘든 것이지, 한번 나눔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행복함을 알기에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나눔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글 김정아 사진 구세군자선냄비, 한국국제봉사기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한국로하스협회

신한금융그룹

단순 지원을 넘어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존 공감 공생 공공공 프로젝트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을 모토로 하는 신한금융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은 장기적 · 지속적 지원으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의 나눔이 아닌, 임직원 모두가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희망사회를 만들고 있는 신한금융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한다.

신한금융그룹 사회책임경영의 세 가지 키워드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존', 전통적 가치와 문화 보존을 위한 '공감', 환경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한 '공생'이다.

신한미소금융재단 · 신한장학재단 운영

'함께 더불어 산다'는 의미의 '공존'은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저신용·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신한미소금융재단을 설립했고, 생활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수한 학생을 위해 신한장학재단을 설립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감' 키워드를 실천하기 위해 문화재사랑캠페인,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활동, 궁궐 지킴이 등의 사업을 전개해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 밖에도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한금융그룹은 국내 금융사 최초로 탄소경영 최우수 기업 5곳만 선정되는 '탄소경영 아너스클럽'에 4년 연속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신한금융그룹의 사회공헌활동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자원봉사 대축제'다. '함께 나누는 행복, 신한 자원봉사 대축제'라는 이름으로 10년째 꾸준히 펼쳐지는 이 행사는 약 50일간 전 직원 및 가족 등 총 2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총 17개국의 해외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Global One Shinhan' 자원봉사 대축제로 행사를 확대했다.

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활발

본업인 금융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2년 국내 최초로 초등학생 경제교육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개방해 '어린이금융체험교실'을 시행했고, 2013년에는 '신한청소년금융교육센터'를 설립해 다양한 체험교육과 세대별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중 '공존'을 키워드로 한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의 목적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뜻을 함께한다. 이에 신한금융그룹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소외이웃에 보금자리

영유아 · 노숙인 · 장애인 · 미혼모 시설
이용자 전체에게 자립과 희망 심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두리홈 미혼모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미영(가명)씨는 이곳에서 지난해 아이를 출산했다. 앞으로 아이와 살아가기 위해서는 취업을 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어 막막할 뿐이다. 무료로 교육 지원을 하는 곳이 있어 알아보기도 했지만, 아이를 따로 두고 다닐 수도 없고 누군가 잠시 돌봐준다고 해도 장시간 맡길 수는 없었다. 앞길이 막막하던 중 신한금융그룹에서 진행한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두리홈 시설에 자립훈련 공간이 생겨났다. 현재 미영씨는 이곳에서 주 2회 바리스타 교육과 베이커리 교육을 받으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낯설고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 교육을 받는 동안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에 안심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해마다 연말이면 소외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준다. 공동모금회가 신한금융그룹으로부터 지정기탁 받은 기부금을 지원하고, 구세군자선냄비가 5년째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지원된 시설은 영유아·노숙인·장애인·미혼모·노인 등이 이용하는 기관으로, 총 5곳에 따뜻한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방한키트 포장 등 연말엔 임직원이 직접 참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섭 구세군자선냄비 팀장은 "현재 우리 주변에 소외이웃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은 많지만, 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합니다.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노후되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없다면 결국 그 1,000명의 사람들은 소외되는 것입니다. 시설이 따뜻하고 꼭 필요한 공간으로 변해야 이용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신한금융그룹이 이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어려운 사람 개개인을 지원하는 것도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공간의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는 곧 지역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미혼모 시설인 두리홈에 자립 교육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시설 이용자 전체에게 '자립'과 '희망'이라는 행복을 줬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만든 빵과 커피를 지역 내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누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소외이웃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신한금융그룹 임직원들이 참여해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해 600개의 방한키트를 포장하기도 했고, 1호점인 영유아 시설 보금자리 오픈식 때는 직접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눠 먹기도 했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단순히 현금 기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베트남 청년 직업훈련

한국어 교육 · 컴퓨터 수리 · 회계 등
실용적인 직업 교육과 취업 지원

베트남 호찌민에 살고 있는 25세 누웬 민 트룽 씨는 부모님, 어린 동생 3명과 함께 살고 있다. 트룽 씨 가족의 유일한 소득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의 월급뿐이다. 수입은 월 250만 동, 한화로 약 15만 원 정도다. 하지만 점차 경비원 자리가 사라지고 있어 트룽 씨 가족은 늘 불안해하고 있었다. 하루하루 빠듯한 생활 속에서 트룽 씨는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일을 비롯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학창시절부터 갖고 있던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다 우연히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한·베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 과정을 알게 되었고, 6개월간 강한 의지로 공부한 결과 바로 한국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입사한 트룽 씨는 600만 동의 급여를 받게 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됐다. 센터를 만나기 전, 트룽 씨는 막막한 현실 앞에 아무런 희망도 없었다. 하지만 이젠 꿈이 생겼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야간 전문대학에 입학, 한국어 공부를 계속해서 한국어 강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게 됐다.

트룽 씨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것은 2013년부터 신한금융그룹과 한국국제봉사기구가 협력해 펼치고 있는 '베트남 빈곤청년 직업교육센터 운영사업'이다. 2013년 베트남 호찌민 인민위원회로부터 사업허가를 받고, 한베청년경제기술교육센터를 설치해 직업교육과 12군중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활동을 시작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도움

한베교육센터에서는 베트남 내 저소득층 및 실업 청년(18~35세 미만)을 대상으로 컴퓨터 수리, 회계, 컴퓨터 OA, 한국어 등을 교육, 수료 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현재까지 총 945명이 교육을 받았고, 베트남 현지 파트너 기관인 12군중등경제기술학교에서는 총 1,4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국제봉사기구 신선영 베트남 지부장은 "교육 대상자들이 저소득가정이다 보니 다양한 문제로 교육을 끝까지 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당사자가 아파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1대1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포기율을 점차 줄이고 취업률은 높일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8기 교육생들을 배출했고, 오는 2월부터 9기 120명의 청년이 교육 지원을 받게 된다.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교육이 진행되지만 한국어나 기술 분야의 과목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무엇보다

교육으로만 그치지 않고 취업으로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곧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업체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관계 및 발전에도 기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복지시설에 태양광발전 및 정원 설치

이동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쾌적한 공간
지구온난화도 막고 전기료도 대폭 아껴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폭행을 피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라 주변 환경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이 시설의 경우 도심에 위치해 있고, 주위에 녹지공간이 전혀 없어 하루종일 방 안에서만 지내는 아이들도 있었다. 대전에 위치한 중증장애아동 거주시설인 로뎀 역시 마찬가지였다. 1급 중증 장애아동이기에 이동이 매우 불편해 외부 출입이 쉽지 않았다. 인근에 공원이 없어서 자연을 접하기는 더 어려웠다.

하지만 신한은행에서 8년째 지원하고 있는 '소외계층 복지시설을 위한 태양광발전 및 정원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두 기관은 옥상에 정원을 갖게 됐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자연을 접할 수 있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발달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정원 조성과 함께 태양광 발전 장치도 지원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기관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전기료다. 냉난방 기기가 있어도 전기료가 부담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관들도 많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원해 기관의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비 절감은 곧 시설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에게 또 다른 혜택으로 돌아가 만족도가 높다.

우기정 (사)한국로하스협회 담당자는 "태양광발전시스템 지원으로 월 평균 적게는 3만 원, 많게는 13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옥상 정원도 여름철 건물의 온도를 낮춰 간접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효과가 알려져 많은 기관들이 신청하고 있지만, 한 해 3~4곳밖에 지원할 수 없어 마음이 아픕니다"며 안타까워했다.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태양광 시설 12곳, 정원 14곳이 지원되었다. 운영 기관 측은 꾸준히 이 사업이 진행돼 소외계층 시설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그 비용으로 이용자들에게 또 다른 혜택이 지원될 수 있길 희망한다. 더불어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동참하고, 설치 기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홀어르신과 사랑 잇기 봉사

사랑나눔일촌맺기, 효드림데이 등
임직원 직접 방문해 마음과 정 나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 마음잇는 봉사'는 신한은행이 8년째 진행하는 지정기탁사업이다. 홀어르신에게 후원금이나 물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직접 기업의 임직원 봉사자가 방문해 마음과 정을 나누는 사업으로, 사랑을 잇고 마음을 잇는 활동이다. 무엇보다 지원 대상자인 홀어르신에게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 아닌, 봉사에 참여하는 젊은 층과 어린 아이들에게 경로효친 사상과 사회적 가족공동체의 중요성을 전달해 세대 간 통합 사업으로의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크게 사랑나눔일촌맺기, 효드림데이, 스페셜패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랑나눔 일촌맺기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신한 임직원들과 저소득 홀어르신을 결연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후원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안부 전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대화 상대가 없어 늘 외롭게 지내던 홀어르신들은 짧은 통화지만 큰 위안을 얻는다. 또한 어버이날 초청행사인 효드림데이 프로그램은 식사와 공연, 풍성한 선물 제공 등을 통해 특별한 날 더 외로울 수 있는 홀어르신들에게 뜻깊은 날을 선물한다. 이 밖에도 6월에 진행되는 일명 '비빔밥데이'와 추석에 진행되는 '한가위 큰잔치' 등 스페셜 패밀리 데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없는 홀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해 준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주희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자와 어르신을 결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일정을 조율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고 나면 어르신들의 처음 무표정했던 모습과 달리 환해진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사업을 통해 홀어르신들이 좀 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세대 간 통합과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며 향후 사업에 대한 기대를 비쳤다.

착한일터_삼성엔지니어링

글 김가린 사진 장은주

도움 필요한 곳 찾아 국경 넘는 상생의 손길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글로벌 기업답게 삼성엔지니어링은 사랑 나눔으로 지구촌 미래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국경과 한계를 뛰어넘는 기업의 창의적인 나눔 경영, 그 기반에는 직원들의 꾸준한 기부 습관이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사회공헌활동은 그들의 사업 활동만큼이나 적극적이다. 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가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때 현장 근처의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기술학교를 설립한다. 2012년부터는 인도,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등 세계 곳곳의 낙후된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가 어린이 도서관을 새 단장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단순히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서를 기증하여 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서관만 전 세계 17개, 총 3만 9,000여 권의 책을 기증했다. 국내에서는 농촌마을과의 자매결연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사회공헌활동도 진행 중이다.

다채로운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의 기반이 되는 건 직원들의 성실한 개인 기부 습관이다. 쉽고도 의미 있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착한일터 기부를 실천 중이다.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전 인원의 80%에 달하는 많은 직원이 1인당 평균 매달 1만~2만 원가량 자발적으로 자신의 월급에서 일부를 기부한다.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매달 하는 기부 덕분에 직원들 사이엔 '사랑이란 행동해야 빛을 발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기업을 바꾸고, 전 세계를 이끌어 갈 상생의 문화 역시 개인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산업의 주 원동력은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 역시 사람, 즉 우수한 인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저희의 경영이념이듯, 사회공헌활동 역시 사람과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사회공헌활동은 주로 아동후원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그 이유에 대해 인사지원그룹 이준연 대리는 기업의 존재 이유와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사람의 행복이기 때문이라 말한다.

꾸준한 기부 습관… 국내서는 장학금 전달 · 멘토링 활동 활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인연은 6년 전부터 시작된다. 2012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던 사옥을 강동구에 위치한 신사옥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될 만한 새로운 사회공헌활동을 구상하게 됐다. 공동모금회에서는 강동구청과 함께 지역 내 장학생을 후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2012년은 삼성엔지니어링이 창립된 지 42주년 되는 해였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42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후원하기로 했다. 이후 '강동구 장학금 사업'이란 이름으로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매년 1명씩의 학생을 추가 선발해 총 4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매달 20만~30만 원씩 후원금을 전달하고 장학생들을 위한 캠프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글로벌 멘토링 캠프는 매년 강동구 장학생과 외국인 직원이 팀을 이뤄 자매결연 맺은 국내 각 지역으로 체험활동을 떠나는 것입니다. 매해 15명씩 학생과 외국인 직원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들에게는 도심을 벗어나 한국의 다양한 자연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학생들 역시 처음엔 서먹해 하다가도 외국인 직원들에게 한국 문화를 설명하며 친구가 됩니다. 프로그램 막바지에는 자신의 장래 희망이나 고민에 대해서도 털어놓곤 해요. 이 활동에서만큼은 도움을 주는 이와 받는 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부자와 수혜자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 만난 이들이기 때문에 금세 마음을 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 고려한 맞춤형 봉사 프로그램

삼성엔지니어링에서의 봉사활동은 대부분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진다. 부담 없이 쉽고 즐거워야 하지만 개인의 시간을 들여야 허투루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그래서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생겨났다. 이곳에선 점심시간에도 봉사할 수 있다. 근처 노인복지회관에서 홀어르신을 위해 만든 도시락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 봉사활동이 될까 싶지만, 홀로 사는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어준다. 신입 직원들을 위해서는 취업 노하우를 활용해 재능봉사 할 수 있도록 취업 설명회와 같은 자리를 만들어 준다. 직장인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을 제시해 적은 인력으로도 많은 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삼성엔지니어링의 특징이다.

"나누고픈 마음은 있지만 선뜻 나서서 사랑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눔은 그렇게 번거로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좀 더 많은 동료들이 생활 속 나눔 실천을 통해 삶의 지혜와 즐거움을 얻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사랑 나눔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란 기업과 직원, 지역사회와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앞장 서는 것 아닐까요. 삼성엔지니어링 직원 모두가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직원들의 기부금,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2018년 2월 기준 약 3,800명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금 모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 5,000만 원, 1인당 평균 금액은 1만~2만 원가량을 모금 중이며 개인이 신청한 금액만큼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국내외 소외지역의 어린이 및 청소년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1970년에 설립된 삼성엔지니어링은 대한민국 엔지니어링 산업의 효시로 정유, 가스, 석유화학, 업스트림에서 발전, 산업설비, 환경에 이르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로 40여 년간 세계 곳곳의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로 성장해 왔다. 고객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지속가능경영으로 인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착한가게가 있는 풍경_강원 강릉

글 사진 조혜원(여행작가)

올림픽에 취해! 커피향에 취해!

동계올림픽의 시작과 함께 경강선 KTX가 개통되면서 강릉이 더 가까워졌다.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컬링 등의 경기가 열리는 강릉. 직접 경기를 관람하지 않더라도 강릉 곳곳에서는 올림픽의 열기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올림픽의 열기만큼 뜨거운 나눔의 열기를 전하는 착한가게가 있다.

1 강원도 강릉 평창올림픽 경기장_©조선일보
2 강릉 착한가게 292호점인 상원전기 이상욱 대표

불 밝힌 전구만큼 따뜻한 나눔 상원전기

강릉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상원전기는 전기와 관련된 모든 것이 모여 있는 곳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작은 전구부터 산업용 전기 기구까지 모두 취급하는 '전기 백화점' 같은 곳이다.

고향이 삼척인 이상욱 대표는 청계천에서 전기 장사를 배웠다. 결혼 후 강릉으로 와서 11평 작은 가게에서 상원전기를 시작했다. 1992년에 맨 처음 지역 복지관에 월 3만 원씩 후원한 것이 기부의 시작이었다.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집세가 15만 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렇게 시작한 기부가 지역 보육원, 요양원 등 여러 곳으로 늘어났다. 사업도 점차 확장되면서 기부금이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80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던 차에 사랑의열매를 알게 됐고 기왕 하는 거 크게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을 결심했다.

"나도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성취감은 해본 사람만 알아요. 남을 돕다 보니 사업도 더 잘되고요."

이상욱 대표가 기부한 금액은 강릉시와 삼척 금덕면 주민센터를 통해 각각 지역 내 차상위계층 10명씩에게 지원됐다. 이후에도 지난해 말 큰딸이 결혼할 때 300만 원을 기부하고, 장애인 배드민턴 단체에 100만 원을 기부하고, 또 다른 기관에 매달 3만 원씩 하는 기부를 시작했다.

이렇듯 기부는 또 다른 기부를 낳는다. 이상욱 대표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면서 상원전기 직원 몇몇도 월 1만 원씩 기부를 시작했다. 이곳에서 일을 배워 속초에 상원전기라는 가게를 차린 수제자와 산악회에서 만난 지인이 그의 소식을 듣고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기도 했다. 예전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지만 좋은 에너지는 긍정적인 전염이 된다.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아니까 떳떳하고, 선후배들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니 기분도 좋아요"라며 허허 웃는 이상욱 대표의 마음이 더 넓게 전염되길 바란다.

시원한 동해 바람과 은은한 향의 조화 커피거리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카페를 오픈하면서 상원전기를 거쳐 가지 않은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상욱 대표도 타지에서 손님이 오면 강릉의 커피 맛을 가장 먼저 보여준다. 강릉 주민에게는 일상이겠지만, 멀리서 여행 온 이들에겐 바닷가에서 마시는 커피 한잔이 일상과 여행을 나누는 신호탄이 된다.

그렇다 보니 이상욱 대표가 추천하는 강릉의 대표 여행지는 단연 커피거리다. 워낙 강릉 전체에 커피가 유명해 꼭 집어 한 곳만 이야기할 순 없으니 여행자의 취향에 따라 고르면 된다. 핸드드립 커피나 주인장의 취향과 철학이 느껴지는 카페를 찾는다면 영진항 쪽으로 향하자. 바다를 따라 달리다 보면 박이추 커피공장, 셀리스, 테라로사 등 강릉을 커피의 도시로 만든 유명한 카페들이 차례로 등장한다. 커다란 통유리창 화면 가득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안목해변으로 가면 된다. 안목해변 쪽에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모여 있다. 주차장도 넓고 같은 프랜차이즈지만, 서울과는 사뭇 다른 풍경 속에서 커피를 음미할 수 있다.

1 강릉 트레킹 코스로 인기인 해솔길
2 영동 착한가게 1호인 원조 초당 순두부 김훈회 대표
3 · 4 강릉 여행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강릉 커피거리. 전 세계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솔숲길 산책하고 출출할 때 생각나는 초당두부마을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표 음식에 초당순두부가 당당히 포함됐다. 강릉의 초당마을과 순두부는 풍경도 맛도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멋과 맛임이 분명하다. 초당마을엔 강릉을 예향과 문향의 고장이라 불리게 한 인물인 허균과 그의 누이 허초희 기념공원이 있다. 〈홍길동전〉을 쓴 허균과 시대를 뛰어넘은 시인 허난설헌이 어릴 적 나고 자란 집터에 기념관과 기념공원이 조성됐다. 하늘을 가릴 만큼 울창한 소나무 숲에 둘러 쌓여 있어 솔향을 음미하며 천천히 산책하기 좋다. 초당마을은 송림 보호구역으로, 200여 년 된 울창한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강릉 트레킹 코스인 해솔길을 따라 바닷가까지 걷기에도 좋다.

적당한 산책 후 출출해지면 초당순두부 마을로 발걸음을 돌리자. 허균과 허난설헌의 아버지인 허엽이 강릉부사로 부임해 와서 바닷물을 이용해 두부를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간수가 아닌 바닷물로 응고시킨 두부는 콩의 풍미가 살아나고 따로 간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맛을 낸다. 천연응고제인 바닷물을 사용하니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력이 좋아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초당두부마을엔 전통 손두부를 만드는 곳부터 얼큰한 짬뽕 순두부를 파는 곳까지 다양한 두부 요릿집이 모여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하기 좋다.

영동 지역 착한가게 1호 원조 초당 순두부

전국 어디나 음식점 한 곳이 유명해지면 너도나도 원조, 처음, 진짜라는 단어가 붙는다. 수많은 순두부 전문점 가운데 눈에 띄는 곳이 있다. 아무런 수식어 없는 '원조 초당 순두부', 간결함에서 오는 자부심은 '진짜' 원조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연원 말고 '원조 초당 순두부'는 1930년 고(故) 조동인 할머니가 강릉 중앙시장 좌판에서 간수가 아닌 바닷물로 두부를 만들어 팔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그 후에 초당마을에서 몇 가구가 두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초당두부마을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 당시 강릉 시장의 권유로 초당마을에서 두부를 파는 식당을 열면서 초당 순두부 거리가 형성됐으니 정말 이 집이 원조라 불릴 수 있는 곳이다.

현재는 할머니의 손자인 김훈회 대표가 가업을 물려받아 운영 중이다. 매일 새벽 3시반에 두부 만들기를 시작해 평일엔 한 번, 주말엔 2번에서 4번까지 두부를 만든다. 한 번 작업할 때마다 3시간씩 걸리는데, 한번 작업에 순수하게 두부만 36모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반은 두부, 반은 순두부를 만드니 두부의 양은 매우 적다. 별다른 기교 없이 투박하면서 소박한 두부 한 모에는 이렇게 길고 짙은 정성이 들어간다.

3대째 내려오는 방식대로 맷돌로 콩을 갈고 장인에게 의뢰해 만든 가마솥에 콩물과 바닷물을 넣고 천천히 응고시켜 두부를 만든다. 두부를 응고시키는 바닷물의 양과, 가마솥 장작불 조절이 말로 설명해도 따라 할 수 없는 이 집만의 비법이다. 초당두부마을에서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으로 두부를 만드는 집은 한 손으로 꼽을 만큼이다.

김훈회 대표는 정직하게 두부를 만들어내는 마음만큼 기부에 대한 생각도 남다르다. 초당두부마을이 기부 마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2009년 2월 '착한가게'에 동참하고 이웃에게도 전했다. 김 대표는 큰 의미를 둘 일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지만 영동 지역 1호 착한가게다. 나눔의 좋은 기운은 금세 전파되어 영동 지역에 어느새 300호가 넘는 착한가게가 탄생했다. 김훈회 대표는 매달 정기 후원금뿐 아니라 가게 안에 있는 커피 자판기, 야외에 있는 음료수 자판기의 수익금도 모아 매년 기부한다. 딱히 자신이 큰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이런 작은 나눔과 마음이 모여 강릉의 기부문화가 만들어진다.

여행정보

강릉커피거리(안목해변)
주소 :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51-26

원조 초당 순두부
주소 : 강릉시 초당순두부길 77번길 9
문의 : 033-652-2660

허난설헌기념관
주소 : 강릉시 난설헌로 193번길 1-29
문의 : 033-640-4798

글 김정아 사진 하트-하트재단

발달장애 그들이 선생님 되다

2016년부터 하트-하트재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발달장애인을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양성하여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식개선 강사로 활동 중인 발달장애인은 전국에 241명이다. 이들은 '강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당당히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24세인 정태현씨는 자폐성 발달장애인이다. 두 돌이 지났을 무렵 또래에 비해 말이 느리다는 것을 알았고,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 5세 무렵에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다. 어렸을 때부터 소리에 민감하고 동요 듣는 것을 좋아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피아노는 양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고, 악보도 읽을 줄 알아야 하기에 소근육 발달과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됐다. 또한 태현씨는 규칙을 잘 지키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하는 특성이 있어 단 한 번도 수업에 빠지지 않으면서 실력을 키웠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자립의 길 찾아

2012년 태현씨가 다니는 복지관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첼로를 시작했다. 피아노를 배울 때처럼 태현씨는 매일 연습을 하며 실력을 키웠다. 일 년에 한두 번 정기공연도 가졌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태현씨에게 그나마 음악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태현씨는 직접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태현씨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싶었다. 이러한 바람 속에서 2016년 하트-하트재단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강사 육성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음악을 통해 진로를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선생님'이란 호칭에 자존감 높아져

태현씨는 학교에 방문해 아이들 앞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직접 쓴 자신의 이야기를 서툴지만 또박또박 전달했다.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강사로서의 행동과 말투를 배우고 매일 연습을 했다. 물론 처음에는 교육 중 갑자기 화장실을 가거나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도라에몽' 같은 친근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아이들에게 친밀감을 주기도 하고,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을 직접 선택해 선물을 주는 등 함께 소통하며 강사로서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있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강사 태현씨를 통해 변화되는 것을 느낀다. 단 한 번의 교육만으로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발달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태현씨는 당당히 보여주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재능 활용한 강사 활동 인식개선에 큰 도움"

김희은 하트-하트재단 문화복지사업부장

처음에는 발달장애인이 직접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가능할까?' '혹시 무슨 일이라고 생기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았다. 하지만 본 사업의 발달장애인 강사들은 비장애인 강사들과 함께 교육 현장에 나가 원활한 교육의 진행이 가능하며,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

또한 발달장애 강사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음악을 들려주는데, 이는 기존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달리 활기차고 희망이 가득한 감동적인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간접 체험이 가능한 신체적 장애와 달리 발달장애는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발달장애인 강사가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하는 경험을 해본다면, 발달장애인도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조금 더 발달장애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하트-하트재단 '장애인식개선강사 육성' 사업은? 241명의 발달장애인이 강사로 활동 중

2017년 사랑의열매는 장애인 지원 사업에 435억 5,400여만 원을 배분했다. 지원 대상자인 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업부터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사업까지 다양하다. 이 중 하트-하트재단은 지난해 4억 원가량의 지원을 받아 '발달장애인 참여형 장애인식개선 강사 육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6년부터 진행돼 올해로 3년 차가 된 이 사업은 강원, 경기, 경남, 대전 등 전국 각지에 있는 19개의 장애인복지관이 협력해 총 241명의 발달장애인을 강사로 배출했고, 지난해에만 355건의 교육을 진행했다. 사물놀이, 밴드, 합창, 오케스트라 등 각 복지관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 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문 강사'로서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당당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글 손세은 대외홍보본부

2017년 사랑의열매 TV 광고 이야기

빈곤의 포르노를 넘어서

연말 사랑의열매TV 광고의 주인공인 윤아와 소녀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광고 속 엔딩 모습이 포스터로 낙점되고, 곧이어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 메인 이미지로 게시가 되었다. 그러나 홈페이지 이미지가 바뀐 지 일주일 남짓만인 지난해 12월 중순, 복지관에서 일하는 어느 사회복지사가 준법감시실로 메일을 보내왔다. 잠재적 기부자를 자극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굳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도 보기 어려운 모습으로 소녀의 옷을 꾀죄죄하게 입혔어야 했느냐는 이야기였다. 포스터엔 보이지 않았지만 홈페이지에 등장한 아이의 바지는 사실 매우 낡고 초라해 보였다. '옳은 지적이다' 싶어 포스터처럼 아이의 궁색함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게끔 홈페이지 이미지를 교체했다.

빈곤 · 질병의 아픔을 왜곡 없이 전달한 광고들

어느 해부터 일명 '빈곤 포르노'로 불리는 자극성 기부 광고가 넘쳐났다. 가난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강한 동정심을 불러일으켰고, 아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당장 뭔가를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 정도다. 광고를 보는 사람의 즉각적 반응을 불러올 수 있는 강력한 소재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적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거나, 극단적 상황의 사례자 노출 등 현실의 빈곤과 질병의 아픔을 왜곡하고 확대해 기부 촉진 마케팅의 수단으로 삼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자문하게 됐다.

공동모금회의 올해 TV 광고 제작은 그런 고민에서 시작했다. 특히 연말 광고는 어둡거나 슬프지 않게 기부 광고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제작됐다. 우리가 돕고 보살펴야 하는 이웃은 파리가 떼로 달려드는 아프리카의 아이들 같은 비현실적인 모습이 아니다. 그들은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얼핏 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고 1인당 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모습을 시대극에서나 볼 법한 빈곤의 특정 이미지로 한정해서는 곤란하다.

윤아가 등장한 연말 광고는 TV 주말 드라마의 예고편처럼 세련된 톤과 절제된 구성이 그 핵심이다. 광고 속 아이는 "나는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라고 말한다. 우리가 돕는 아이들은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그러니 "지금, 돌아봐주세요"라고 호소한다. 그러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테니 말이다. 소녀와 할아버지가 거리에 등장했지만, 도움이 필요한 실체를 억지 설정하지도 않았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소녀가 피규어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광고적 장치가 감성소구의 유일한 도구였다.

지난해 가을 어려운 처지의 아동·청소년들이 교육·진로·취업연계의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받는 희망플랜 사업을 소재로 만든 광고도 같은 맥락이다. 빈곤의 대물림을 끊자는 취지였지만 빈곤의 궁색함보다는 빈곤의 굴레를 끊어 버리는 모습에 치중했다. 애니메이션 기법을 도입한 이유도 동정심에 호소하는 기존 기부광고의 틀을 벗어나려는 뜻이었다. 아울러 사랑의열매는 모금은 많이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지원을 하느냐는 궁금증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정도 고려했다.

연중광고 역시 유쾌하고 밝은 분위기의 광고로 전국에 있는 실제 기부자를 참여시켰다. 직장인, 순댓국밥집 사장부부, 농부에 이르기까지 이웃에 있는 평범한 이들이 저마다의 기부참여 의미를 전하는 진정성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광고에 재능기부로 출연한 홍보대사 박수홍과 어머니 지인숙 여사도 광고 촬영 이후 착한가정 기부 프로그램에 가입하며 100% 기부자들의 참여로만 제작된 광고라는 또 하나의 의미를 담을 수 있었다.

기부자와 지원 대상자의 인식 차이를 줄여야

한 편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인지되려면 한판 전쟁을 벌여야 한다. 강한 시각적 자극과 상식을 뛰어넘는 독창성이 발휘되는 치열한 광고 세계에서 '기부'와 '나눔'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원초적 자극인 '동정심'이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쓰지 않은 채 대중의 시선을 잡고 마음을 움직이는 광고를 만들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존 기부 광고는 현실을 극단적으로 과장하고 쥐어짜는 억지를 부리기 마련이다. 그런 광고의 부정적 결과가 아닐까 싶은 일이 최근에 벌어졌다.

'월급을 쪼개(매월 5만 원씩) 후원하는 직장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후원 아동이 피아노 학원을 다니며 20만 원짜리 브랜드 롱패딩을 요구해 어이가 없었다"는 얘기였다. 후원은 중단됐고 그의 글은 신문에 보도됐다. 아이의 부모는 투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정부지원을 받던 처지였다. 빈곤층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과 한 초등학생의 단순한 욕구가 상충되면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문이 롱패딩 이야기를 보도한 이유는 후원자와 독자들의 시각이 비슷하리라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는가? 기부자는 어떤 사람을 돕겠다며 손을 내미는가? 롱패딩 사례 때문에 새삼 자문하게 된다. 만일 기부자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인식에 격차가 있다면 그 해소는 기부단체에서 일하는 우리의 몫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돕는 대상은 결코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들이 아니다. 사랑의열매가 만든 2017년의 광고는 그런 의미에서 후원자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인식 차이를 좁혀보려고 우리가 내디딘 첫발이었다.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 같지만 방향만큼은 옳았다는 안도감이 든다.

글 김정아 사진 조현호

착한가게 2,600개
나눔으로 뜨거운 울산

한때 울산은 기업 기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이었다. 울산 시민들 역시 '기부는 기업의 일'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울산이 변하고 있다. 전국에서 착한가게 가입 수가 가장 많고, 시민 2% 이상이 기부에 동참하며 울산 곳곳에 나눔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들이 있었다.

얼마 전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를 더 내고 경비원 인원을 줄이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가구당 추가로 내는 금액은 9,000원. 아파트 주민들은 '조금씩만 더 내면 모두 함께 좋은 일이 되기에 결정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적은 금액이 합쳐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이다. 이 사례는 요즘 울산의 나눔문화를 잘 보여준다. 바로 '풀뿌리 모금의 힘'이다.

기업 기부의 비중이 큰 지역은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울산 공동모금회 역시 3년 전 경기가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기부하지 않아 모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 당시 새롭게 부임한 방성수 사무처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기부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 기부의 비중이 많아져야 안정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부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했다.

이원경 모금사업팀장은 "그동안 기업에서 내는 큰 금액의 기부가 익숙해져 있기에, 기부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꾸기 위해 모금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것이었죠. 적은 돈도 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라고 말한다.

울산 모금회, 착한가게 적극 홍보… 전국 최초

우선 울산 공동모금회는 '착한가게'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처음에는 기부를 권유하자마자 등 떠밀려 쫓겨난 적도 있고, '사랑의열매'라는 말에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기도 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가게에 방문해 '착한가게'를 알렸다. 때마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밀착돼 나눔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 결과 2016년에는 1,155개의 착한가게가 가입했고, 2016년

울산 공동모금회 착한가게 기록들

착한가게 전국 1위
(2016년 8월부터 유지)

전국 최초 착한가게 2600호 돌파 (2018년 1월 23일)

전국 착한건물 6곳 중 3곳

전국 착한거리 27곳 중 7곳

전국 착한전통시장 6곳 중 5곳

8월 이후 착한가게 가입 수 전국 1위를 지키고 있다. 울산의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2017년에도 착한가게 나눔 릴레이는 끊이지 않아 지난 1월 2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2,600호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 올해 울산 공동모금회는 울산 시민의 3%가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착한가게와 천사계좌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기부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나눔이 멈추지 않고, 더 크게 퍼질 수 있도록 힘차게 달릴 것이다

천사계좌 캠페인 통해 기부 인식 변화

울산 공동모금회가 소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또 하나의 캠페인은 바로 '천사계좌'다. 1계좌가 1,004원인 천사계좌를 3계좌 이상 가입하는 것으로, 3,012원으로 누구나 나눔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천사계좌는 2만 4,000여 명이 가입했는데, 이는 울산시민의 2.06%에 해당하며 착한가게와 천사계좌의 연간 기부액은 13억 원가량 된다. 무엇보다 천사계좌로 인해 기부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 할 수 있다. 기부는 적은 돈으로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이다. 실제로 캠페인 이후 어린 아이들의 기부가 많아졌고, 무엇보다 사랑의열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저소득가정 학생에게 책가방을 구입해 주거나 홀어르신 가정에 반찬을 배달하는 등 직접 눈으로 기부금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기부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기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소액이다 보니 관심이 없는 기부자도 많았다. 하지만 자신이 낸 기부금이 지역 내에서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안 이후 관심도 많아지고, 지속적으로 기부 의사를 전하는 이들도 증가했다.

개인 기부자가 늘어나면서 공동모금회 직원들의 업무량은 수십 배로 늘어났다. 그래도 이들은 시내 곳곳에 걸려 있는 '착한가게' 현판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동전으로 가득 찬 저금통을 고사리손으로 들고 온 어린 기부자를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올해 울산 공동모금회는 울산시민의 3%가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착한가게와 천사계좌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기부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나눔이 멈추지 않고, 더 크게 퍼질 수 있도록 힘차게 달릴 것이다.

울산 공동모금회 직원들

나눔문화를 바꾼 3%의 기부자들

방성수 울산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한 지 어느덧 20년이 됐다. 제일 처음 경북 지역에서 팀을 꾸려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인원도 3명뿐이었고, 시민들에게도 낯선 기관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젠 '사랑의열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했다.

모금 기관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년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전 직장에 사표까지 내고 공동모금회에 입사를 했다. 사회 곳곳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에 선택하게 됐다. 경북 · 부산 · 대구 · 서울 · 세종 · 울산 공동모금회까지 여러 곳을 거치면서 다양한 모금 캠페인을 펼쳤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01년 경북에 있었을 당시 기획했던 '난치병 학생 돕기' 캠페인이다. 전국 최초로 시작된 이 사업은 난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내의 학생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 것으로, 도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학교를 중심으로 모금활동을 펼쳤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몇 달간 교육청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서울에 있는 주요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타 지역 학생들이 경북으로 전학을 오는 경우도 많았다. 이 모금 캠페인은 이후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경북 지역의 대표 모금 캠페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강요나 감정에 호소해 이끌어내는 기부가 아닌, 체계적이고 계획된 모금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인 기부로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됐다.

착한가게 · 천사계좌 등 소액 기부 확산 주효

2015년 3월 울산 공동모금회에 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기업 기부에 너무 치중돼 있다는 점이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개인 기부가 적었다. 기부액은 많지만, 나눔문화가 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내가 평소 직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소금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3%의 기부자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울산시민의 3%만 기부에 참여하면, 분명 울산의 나눔 문화가 변화할 거라 믿었다. 개인 기부의 필요성에 공감한 직원들은 착한가게, 천사계좌 등 소액 기부 확산을 위해 함께 뛰었고, 그 결과 2016년 8월 이후 착한가게 전국 1위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주는 것과 받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행복할 것 같냐'는 질문에 '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주는 행복이 얼마나 더 크게 자신에게 돌아오는지 경험해 보라고. 나눔은 베풀수록 더 크게 돌아오는 부메랑이라고.

글 연선옥(조선비즈 경제부 기자) 그림 셔터스톡

기부 많이 할수록 세금 혜택 더 받게

솔로몬식 세제 해법 있을까?

기부가 좋은 건 취약계층의 미래를 좀 더 밝게 해주기 때문이다. 더불어 동참한 기부자들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알아두면 유익한 기부금에 따른 세제 혜택 범위를 비롯해 기부활동의 확대를 이끌어낼 조세제도의 개선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기부금 공제를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했다. 과거에는 연봉에서 기부금 등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추징했지만, 이제는 전체 소득에 세금을 매긴 후 기부금 액수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이후 기부금 공제 액수는 확대됐다. 2016년까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지난해부터는 2,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30%(2,000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2017년 한 해 5,000만 원을 기부했다면, 2,000만 원까지는 15%인 300만 원, 나머지 3,000만 원의 30%인 900만 원을 합쳐 총 1,20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기부에 나서면 나눔문화에 동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절세 효과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셈이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으로 분류되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나 이재민 구호품, 사회복지활동의 재원을 모집하는 비영리법인에 내는 기부금은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의 100%까지, 부양가족이 기부한 것도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법정기부금은 공제한도를 초과했더라도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전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에 걸려서 공제를 받지 못한 내역은 올해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세액공제는 고액 기부 시 환급 세금 줄어

최근에는 직접 돈을 기부하는 것뿐 아니라 남은 카드 포인트를 통해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각 카드사가 포인트 기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포인트 기부를 받는 단체도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카드 포인트로 기부한 것도 현금이나 물품을 기부한 것처럼 동일하게 연말정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일부 기부금의 경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조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기부금에 대해 따로 영수증을 받아놓고, 연말정산 신고서의 공제 항목에 직접 기입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기부에 동참하고 이를 통해 절세 효과를 기대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가 규정한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오히려 고액 기부를 막고 있다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소득세율에 따라 최종 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소득자에 유리하다. 반면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에 유리하다.

최근 정부가 개인 기부 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면서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금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더 줄어들게 됐다. 고액 기부자의 경우 세제 혜택을 목표로 기부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혜택이 일종의 활성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법개정 이후 전체 기부금 규모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프랑스는 우리보다 기부금 세제혜택 커

선진국은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크게 깎아주는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기부를 독려한다. 미국은 정부가 인정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개인에 대해 예외 없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한다. 미국의 연간 기부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에 이르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세제 혜택이다. 프랑스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6%(연 소득의 20% 한도)로 정하고 있고, 독일 역시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총소득의 20%로 정하고 있다. 일본은 개인 기부금에 대해 40%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한편 개인뿐 아니라 법인의 기부를 늘리기 위한 정책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정부의 사회복지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법인 기부를 독려하면 이 자금이 복지를 분담하는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조세제도 아래에서 법인이 기부한 금액은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데다 한도가 정해져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규제가 법인의 기부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회사 주식 5% 이상 기부 땐 최고 50% 증여세 '부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등 글로벌 기업 경영자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선재단에 쾌척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 제도의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저커버그 CEO와 빌 게이츠 창업자는 자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책임회사(LLC)나 공익법인을 세워 이 단체를 통해 주식을 포함한 개인 재산을 기부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기부 목적의 LLC나 공익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단체가 한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받을 경우, 초과한 주식 보유분에 대해 최고 50%의 증여세를 부과한다. 기업인들의 기부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법인의 기부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회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박상민 어머니와 함께 1,000번째 '착한가정' 되다

지난 1월 2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가정 단위 정기기부인 '착한가정'이 1,000번째 회원을 맞이했다. 주인공은 바로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다양한 나눔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박상민(54)씨와 어머니 송병인(81) 여사다.

어머니와 함께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착한가정 가입서에 서명한 박상민씨는 '35년간 시장에서 채소장사를 하면서도 근검절약해 모은 돈으로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운 부모님의 모습이 이번 착한가정 가입과 그동안 기부를 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전했다.

송병인 여사는 "남편과 함께했던 선행을 아들과도 같이 하게 돼 어느 때보다도 뿌듯하다. 누구보다도 하늘에 있는 남편이 흐뭇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상민씨는 2005년부터 매년 여름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황기순씨와 장애인 휠체어 지원사업을 위한 '사랑더하기' 거리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2008년 9월에는 장애인과 소아암 환자를 위한 자선공연 등으로 11년간 40억 원 이상을 기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3년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연말연시 집중모금캠페인 출범식에서 재능기부를 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홍보대사 박수홍 목소리 재능기부 나눔콜센터 ARS 메시지 녹음

1월 25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박수홍씨가 재능기부로 나눔콜센터 ARS(080-890-1212) 안내 메시지를 녹음했다. 지난해 1월 ARS기부(060-700-1212) 메시지를 녹음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박수홍씨는 2016년 12월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광고 및 포스터 촬영을 비롯해 희망2018나눔캠페인 제막식 참여 등 다양한 재능기부뿐 아니라 어머니 지인숙 여사와 함께 착한가정에 가입해 기부하는 등 나눔문화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나눔콜센터는 나눔 참여와 지원 방법 등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사랑의열매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평일(월~금)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서울

현대차, 블루핸즈 가맹점과 함께 성금 전달

지난해 12월 22일 현대자동차(대표이사 이원희)와 전국의 현대자동차 정비 가맹점인 블루핸즈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현대자동차와 블루핸즈는 2016년 12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착한 프랜차이즈'로 가입하고, 전국 1,400여 개 가맹점 중 현재 229개의 가맹점이 동참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동안복지재단, 소외된 이웃에 10kg 쌀 6,448포 기부

동안복지재단(이사장 김형준)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공동모금회에 10kg 쌀 6,448포를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쌀은 동대문구 저소득층에 3,000포, 서울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저소득층에 3,448포가 지원될 예정이다. 동안복지재단은 지난해 7월 서울시와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원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람지원 업무 협약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만우)는 지난해 12월 26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취약계층 관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공동모금회는 도와 협의해 관람에 필요한 입장권 등 기부금(품)을 모금해 취약계층의 관람을 지원하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해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모금 캠페인은 2018 평창 패럴림픽 폐회날인 3월 18일까지 진행된다.

김기홍 도의원,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 기부

지난해 12월 21일 김기홍 강원도의회 의원이 강원 공동모금회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6년째 기부를 이어오며 현재까지 총 1억 500만 원을 기부했다. 2012년 출마 당시 의정비를 기부하겠다고 공약한 김 의원은 재선에 성공한 후에도 매 연말 약속을 지키고 있다. 김기홍 의원은 "제게도 큰 금액이지만 첫 선거에서의 약속을 지키면서 더욱 힘든 분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남

프로야구 나성범 선수 팬클럽 성금 전달

1월 10일 나성범 NC다이노스 선수와 팬클럽 '47짱 성범빠'가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철수)에 지역꿈나무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매 시즌 나성범 선수가 홈경기에서 안타(홈런 포함)를 칠 때마다 1,000원씩 모은 것이며, 나성범 선수도 자신의 한 시즌 안타 수를 곱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탰다. 나성범 선수는 "따뜻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고 소중한 성금이 야구 꿈나무들에게 소중하게 잘 사용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영기 김해시의원, 경남 2호 나눔리더 가입

김해시의회 전영기 의원이 1월 16일, 경남 나눔리더 2호로 가입했다. 전 의원은 본인의 환갑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행복을 나누고자 500만 원을 기부, 경남의 두 번째 나눔리더이자 첫 공직자 나눔리더가 됐다. 전영기 의원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불어 사는 마음과 실천이 필요한 것 같다. 공직자로서 주변을 돌아보고 나누는 일에 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북

안동 지역 6개 라이온스클럽, 3,700여만 원 전달

지난해 12월 19일 안동 지역 6개 라이온스클럽은 '2017 봉사보고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현수)에 이웃돕기 성금 3,700여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안동중앙라이온스클럽(1,900만 원), 안동(MJF)라이온스클럽(700만 원), 풍산라이온스클럽(300만 원), 안동영호라이온스클럽(600만 원), 안동은행라이온스클럽(250만 원), 안동송죽라이온스클럽(200만 원)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하면서 마련됐다.

고령 축산농장 24곳, 착한가게 단체 가입

대한한돈협회 고령군지부 소속 축산농장 24곳이 지난해 12월 22일 착한가게에 단체 가입했다. 이번 단체 가입은 최근 경북 아너 75호 회원으로 가입한 이기홍 전 대한한돈협회 고령군지부장(우수농장 대표)의 참여 제안을 계기로 진행됐다. 이로써 고령군 착한가게는 2010년 지역 1호점 탄생을 시작으로 이번 단체 가입까지 더해져 모두 169호점까지 크게 늘었다. 이동균 지부장은 "지역 축산인들이 함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위원회, 5억 8,000여만 원 전달

1월 16일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위원회(회장 김상태 (주)평화발레오 회장)는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함인석)를 방문해 회원 기업들이 모은 성금 5억 8,350만 원을 전달했다. 김상태 회장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성금 모금을 기획하게 됐다. 일회성 나눔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더 나은 대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한마음으로 착한일터 가입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가 1월 11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대구도시공사는 1988년 설립한 전국 최초의 도시개발공사로, 매년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의 개보수 사업 등 사회공헌을 실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대구의 대표 공기업이다. 윤광수 전무이사는 "임직원들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마음을 모아 나눔 실천을 결심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혔다.

대전

삼성생명 세움법인, 착한일터 성금 1,000만 원

1월 4일 삼성생명 세움법인(대표 유제숙)이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기호)에 착한일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 성금은 직원들의 보험 실적 건수에 따라 적립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금을 전달했다. 유제숙 대표는 "한 해 동안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모은 성금으로, 매일 나눔을 실천하다 보니 직장 분위기도 더 따뜻해지고 서로 배려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8년 신청사업 배분 및 사업수행 교육

대전 공동모금회는 1월 12일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2018년 신청사업 수행기관 배분금 지원 및 사업수행 교육을 진행했다. 신청사업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자유주제 공모 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받아 배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프로그램 사업 21곳, 기능보강사업 11곳, 총 32곳에 3억 5,000여만 원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2017년 대전 시민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과 희망2018나눔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성금으로 지원되는 첫 번째 사업이다.

부산

2018년도 신청·복권기금사업 전달식 및 교육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정택)는 1월 17일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2018년도 신청·복권기금사업 전달식 및 사업수행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신청사업은 59곳으로 총 7억 2,300여만 원을 지원하고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29곳, 총 8억 5,300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정택 회장은 "부산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발굴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이웃돕기 성금 전달

지난해 12월 27일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정현태)는 부산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와 저소득계층의 생계·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현태 회장은 "우리 기업들도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봐야 하는 책임도 우리 기업에 있기에 성금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울산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성금 1,000만 원 기부

지난해 12월 27일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회장 김인식)는 희망2018나눔캠페인 이웃사랑 성금 1,000만 원을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장광수)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김인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회장, 장광수 울산 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다. 김인식 회장은 "좋지 않은 경기 상황에서 이웃돕기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구 대영교회, 이웃돕기 성금 2,000만 원 전달

울산 북구에 위치한 대영교회(담임 목사 조운)가 지난해 12월 13일 울산 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 2,000만 원과 경로당·군부대 간식 등 성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북구 관재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정이다. 전달식은 김재두 장로와 박천동 구청장, 장광수 공동모금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영교회는 해마다 연말이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인천

인천국제공항공사, 연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지난해 12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인천시민공원에서 사회공헌 성금 13억 4,000만 원을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정명환)에 전달했다. 이 성금은 국제공항공사가 특별히 마련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인천시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위해 사용되며,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생계와 난방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에 지원된다.

인천 광역시여성운전자회, 나눔택시 성금 전달

1월 9일 인천 공동모금회는 인천광역시여성운전자회(회장 김경자)로부터 성금 286만 원을 전달받았다. 여성운전자회는 1969년에 창립돼 현재 약 100여 명의 회원으로 이뤄진 단체로, 1년간 택시 안에서 승객들에게 껌 등을 제공해 기부금을 마련했다. 한편, 여성운전자회는 지난 2011년 10월 '나눔택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 택시 내부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나눔택시'를 상징하는 차량용 깃발을 부착해 인천의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

목포예치과 원장인 김성훈 아너 장학금 기탁

지난해 12월 20일 김성훈 목포예치과 원장은 희망열매 장학금 1,000만 원을 10명의 학생에게 전달했다. 김 원장은 지난 9년간 41명의 학생에게 총 6,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꾸준히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데 앞장서왔다. 김성훈 원장은 "제 아들과 딸 또래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지원을 시작했다. 오늘의 장학금이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2,830여만 원 기부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회장 강갑구)는 지난해 12월 28일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정)에 이웃사랑 성금 2,830여만 원을 기부했다. 전달된 성금은 도내 경로당 어르신들이 모금한 것으로, 자신보다 더 어렵고 소외된 노인들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다. 한편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는 희망2017나눔캠페인 기간에도 2,733여만 원을 모금해 전달했다.

제주

제주 아너들, 홀몸어르신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지난해 12월 28일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제주시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와 함께 '홀몸어르신 겨울용품 지원사업'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신영민 제주 아너클럽 대표를 비롯한 아너 회원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회원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5인 1조로 봉사팀을 꾸려 도내 홀몸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겨울나기 용품을 전달했다.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한우사랑 나눔행사 개최

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김맹종)는 지난해 12월 28일 제주종합경기장광장에서 '한우사랑 나눔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전해달라며 1,000만 원 상당의 한우불고기를 전달했다. 김맹종 회장은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는 앞으로도 한우사랑 나눔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북

새농민회전북도회, 어려운 이웃에 쌀 전달

(사)한국새농민회전북도회(회장 이홍재)가 지난 1월 18일 설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쌀 10kg 200포대를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에 기탁했다. 이홍재 회장은 "새농민 회원들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 후배 농업인 육성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미약하지만 어려운 이웃이 조금이나마 훈훈한 설명절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기증받은 쌀은 설명절 전에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은행, 소외계층에 방한복 1,000여 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지난 1월 17일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방한복 나눔행사'를 실시하고 전북 공동모금회에 1,000여벌의 방한복을 전달했다. '따뜻한 겨울나기' 릴레이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홀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 등 소외계층 이웃들이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임용택 은행장은 "임직원의 정성으로 마련한 방한복으로 소외계층 이웃들이 온기를 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분당제생병원, 착한일터 가입 · 성금 400만 원 전달

지난 1월 10일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순선)는 분당제생병원(원장 채병국)과 착한일터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임직원들은 급여의 일정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게 된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 분당제생병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400만 원을 기부했다. 착한일터 캠페인으로 모금되는 성금은 저소득가정의 치료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2018 복권기금사업 전달식 및 수행기관 교육

경기 공동모금회 북부사업본부는 1월 11일 양주시에 위치한 은하수지역아동센터에서 2018년 복권기금사업 전달식 및 수행기관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는 27개 지역아동센터에 총 7억 5,8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사업비 진행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수행 및 회계 교육 등이 진행됐다. 김경희 북부사업본부 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의사회, 이웃사랑 성금 1,400만 원 기탁

청주시의사회(회장 안치석)는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명식)에 이웃사랑 성금 1,4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청주시의사회가 송년 자선음악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총 28개의 사회복지시설에 각 5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안치석 회장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단순한 질병이 아닌 사회의 아픔을 치료하는 데 미력의 힘이나마 함께하고 싶었다. 앞으로도 회원 의사 선생님들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충북 공동모금회, 보은읍과 좋아유나눔 협약

지난 1월 20일 충북 공동모금회는 보은읍 · 보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좋아유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좋아유나눔'은 보은읍 복지허브화 사업 공동재원 마련과 효율적 배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개 기관이 뜻을 모아 만든 연합모금 명칭이다. 기관 간 협업으로 연합모금 활동을 전개해 개인, 소상공인, 기업 등에 정기적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긴급한 복지지원 수요 발생 시 신속하게 대상자를 지원해 지역에 나눔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충남

천안 병천순댓거리, 충남 첫 착한거리로 지정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관형)와 천안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단장 김예환)은 지난 1월 13일 충남 첫 착한거리 '천안 병천순댓거리 착한거리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착한거리에는 병천에서 영업 중인 순댓국밥집을 비롯해 중화요릿집 등 18곳이 참여하게 됐다. 김회명 병천순대협회장(병천시장순대 대표)은 "병천 상공인들이 하나가 돼 전국적으로 더욱 유명한 병천순대와 착한거리로 거듭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대약품 봉사단,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 기탁

지난 1월 12일 현대약품(주)(대표이사 김영학) 사회봉사단인 두레회(회장 심재철)가 충남 공동모금회 사무실을 방문해 희망2018나눔캠페인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두레회 봉사단 7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동참하게 됐다. 두레회는 매월 주말을 이용해 장애인시설 정기봉사와 의약품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종

익명의 기부천사, 편지와 함께 성금 놓고 사라져

지난해 12월 22일 한 직장인 남성이 한솔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손편지와 함께 이웃사랑 성금을 놓고 사라졌다. 봉투 안에는 기부금과 함께 "직장에서 점심을 사 먹을 때마다 1,000원씩 떼어 적립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액수지만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모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배고플 때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보탬이 되고자 희망합니다"라는 손편지가 담겨 있었다.

사회적기업 (주)장남, 이웃사랑 성금 5,000만 원 전달

세종시 사회적기업인 (주)장남(대표 임재권)이 지난 1월 6일 이웃사랑 성금 5,000만 원을 세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홍영섭)에 전달했다. 임재권 대표는 "나눌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어 기쁘다. 우리 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 발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장남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3억 7,800만 원 상당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광주

골든블루 골프단, 나눔캠페인 성금 5,000만 원 기탁

주식회사 골든블루(대표이사 김동욱)가 지난해 12월 20일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상열)를 방문해 성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주)골든블루 골프단 소속 김혜선 프로가 지난 10월 KLPGA SK 핀크스 · 서울경제 레이디스에서 우승, 후원업체인 (주)골든블루가 우승 금액의 36.5%를 나눔기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김동욱 대표는 "선수들이 역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게 후원활동을 활발히 시행하는 동시에 사회공헌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하이트진로, 광주사랑기금 3,000만 원 전달

지난 1월 15일 하이트진로(주)는 희망2018나눔캠페인 기간을 맞이해 광주 지역 사랑기금 3,000만 원을 기탁했다. 광주사랑기금은 하이트진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해 펼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광주 지역에서 판매되는 주류 한 병당 2원씩 적립,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한 2억 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누적 기탁금액은 5억 원에 이른다.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경기 164호
김철수 신포리쭈꾸미 대표

"고향 친구를 통해 아너를 알게 됐다. 1억 원 기부가 부담도 되지만, 나눔을 통해 행복해하는 친구를 보며 아너 가입을 결심했다."

경기 36호
엄정태 삼일공업사 대표

"도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가입을 결정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사랑의열매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겠다."

전북 42호
김양묵 개성토건 대표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이 사업을 하며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지역민들과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 기쁘다."

전북 43호
권종주 전일특수금속 대표

"고향의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들과 겨울철 힘들게 생활하는 노인들을 생각하며 가입을 결심했다.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전북 44호
최정복 님

"어렸을 적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생했던 기억에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 가입했다. 주위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구 110호
故 김종달 님(전 교육자)

'그리운 아버지, 평소에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아너 회원으로 모십니다' – 고인의 막내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1억 원 기부.

대구 112호
추연규 님(전 교육자)

"나의 나눔이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에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한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성금이 잘 전달돼 모두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

대구 113호
장세철 (주)고려건설 회장

"현재까지 고려건설이 꾸준히 성장 해 온것은 대구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꾸준한 나눔으로 받은 많은 사랑을 소외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다."

울산 77호
김명언 님

"남편과 함께 좋은 일을 같이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나눔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울산 78호
박용걸 한국주유소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지회장

"자라나는 미래의 희망 아동·청소년들 중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 울산시민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제주 78호
이진수 www.바텐더.com 대표

"타지에서 제주로 내려와 사업을 하면서 받았던 고마움을 제주에 환원하기 위해 가입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제주에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주 80호
장승남 (주)아라온제주 대표

"나눔은 행복이다. 많은 분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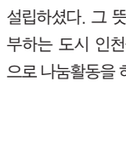
제주 81호
양인석 세기산업(주)·세기레미콘(주) 대표

"추워지는 날씨에도 오르지 않는 사랑의 온도탑을 보며 기부를 결심했다. 이 기부가 보탬이 돼 올겨울도 따뜻한 제주가 되기를 소망한다."

제주 82호
고윤정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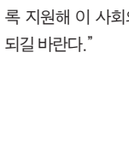
"나눔은 더불어 사는 삶이라 생각한다." – 남편 양인석 대표와 함께 가입하면서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로 이름을 올렸다.

울산 79호
정연중 공원골프클럽(주)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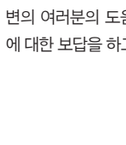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나눔을 시작한 만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경북 79호
이봉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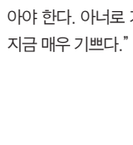
"나는 집에서 손자손녀를 둔 할아버지고 평범한 소시민이지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

경북 81호
이연옥 참한우고령축산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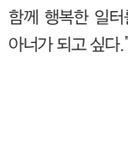
"장성한 자식들을 모두 장가보내고 나니 지난 모질고 힘겨웠던 세월들을 자연스레 되돌아보게 됐다. 내 남은 일생을 '제2의 인생'으로 여기고 봉사하며 살고 싶다."

충남 75호
이정원 (주)구공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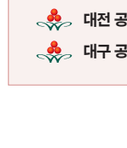
"젊은 시절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번 돈으로 투자를 해 지금의 회사를 운영하게 됐다. 주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가입했다."

전남 64호
송선희 쌍교숯불갈비 대표



"평소에 늘 나눔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남편을 보며 부부회원이 되고자 마음먹었다. 전남 4번째 부부 아너 회원이 돼 진심으로 기쁘다."

전남 65호
장동우 (주)서영 대표이사



"사업을 하며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지역민들과 다시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쁘다."

전남 66호
박춘희 님

"항상 베풀고 이웃과 함께하는 남편을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는데, 함께 좋은 일을 같이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전남 67호
김윤중 삼원기업(주) 회장

"순천시의 나눔 문화가 더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에 가입했다. 앞으로도 더욱 나눔에 힘쓸 생각이다."

충남 77호
최성대 영남강철(주) 대표이사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감사할 줄 알고, 사랑하며 나누며 살자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꾸준히 소외된 곳을 찾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다."

대전 61호
나정훈 네네트웍스(주) 대표이사

"인생의 목표 중 하나가 아너 가입이었다. 정년 퇴직 때 완납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다. 이번 기부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부산 134호
김복순 님

"십년전 신문을 보고 아너에 가입해야겠다고 결심, 남편이 남긴 연금을 꼬박꼬박 모았다.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드디어 한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하다."

인천 115호
김만호 유노테크 주식회사 고문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돼 가슴이 뭉클하다. 부족한 나의 기부를 통해 많은 분이 기부에 용기를 내기 바란다."

강원 58호
서용관 (주)에이스 대표

"주변 이웃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지 늘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그 물음에 대한 실천으로 아너에 가입했다."

인천 116호
박종민 제일특수화물(합) 대표

"고인이 되신 아버지는 학창시절 겪은 어려움을 잊지 않으시고 정일장학회를 설립하셨다. 그 뜻을 이어받아 기부하는 도시 인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눔활동을 하겠다."

경기북부 26호
이상백 (주)에이스 섬유 대표

"지속적인 기부로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이 사회의 큰 재목들이 되길 바란다."

광주 71호
정삼숙 사단법인 파킨스행복쉼터 이사장

"파킨스 환자 2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시작으로 나눔을 시작했다. 그동안 주변의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온 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다."

서울 222호
손승부 (주)인화관광 대표

"어려웠던 시절의 고통을 기억하며 열심히 살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너로 기부할 수 있는 지금 매우 기쁘다."

강원 59호
이상미 (주)샌드로블록 대표

"일하면서 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고 싶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직원들과 함께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부부 아너가 되고 싶다."

중앙회 김동수 前듀폰코리아 회장, 한준호 (주)삼천리 회장, 조삼규 님, 안상현 님, 박정부 다이소아성산업 대표이사, 홍승성 큐브엔터테인먼트 회장,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 조영수 경기대학교 명예회장, 김은미 CEO SUITE 대표이사

서울 공동모금회 익명, 익명, 故 송기찬 前 주식회사 용강 대표이사, 이상락 아시아종합타일상사 대표, 김종진 님, 강석진 도산아카데미 이사장, 이혜정 (주)애터미 회원, 이상현 (주)태인 부사장, 김승한 (주)한창제지 회장, 김지윤 선제영어학원 원장, 정황수·윤여선 님(부부 아너)

제주 공동모금회 강상주 님, 故 강기봉 전 소방관, 서호석 유창토건(주) 대표이사, 익명

경기 공동모금회 박창숙 (주)창우섬유 대표, 김홍매 (주)동원피닉스 대표이사, 박미희 (주)도미솔식품 대표, 이미애 밝은미소안과 원장, 이동수 조은제과 대표, 정유진 한영전기 대표, 박경애 여자수산 대표, 한성영 한성영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충북 공동모금회 심의보 충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나순정 님

경북 공동모금회 윤희영 주흘산업개발 대표, 신현수 복주재활경도요양병원 대표원장, 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조중래 주왕산 삼계탕 대표

전북 공동모금회 최현주 최현주영상의학과

울산 공동모금회 김순희 님, 최준식 (주)성진디엔씨 대표

충남 공동모금회 정문식 프로미스(주) 대표이사

광주 공동모금회 김해용 (주)한림 대표이사, 류혜경 서광병원 병원장, 우명희 (주)영진리빙 회장, 이영현 님, 임홍근 대성건설(주) 대표이사, 이강임 대성베르힐건설(주) 감사, 최세연 (주)가람 대표이사, 임민자 (주)성일이노텍 대표이사, 황대연 (주)삼원테크 대표이사, 익명, 익명

전남 공동모금회 위재춘 여상종합나무 대표

대전 공동모금회 익명

대구 공동모금회 익명

〈사랑의열매〉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난호 독자의견

라온제나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의 재능기부 기사를 읽고 무척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상금을 공동모금회에 기부한 선행도 칭찬받아 마땅하죠.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이 나눔의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성철 · 서울 동작구

언젠가부터 매월 집 근처 도서관을 찾아 〈사랑의열매〉를 읽는 것이 즐거움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목표했던 것만큼 기부를 하지 못해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올해는 꼭 정기기부를 해 보리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시헌 · 인천 부평구

사랑의열매 광고를 참 인상깊게 봤습니다. 특히 아너 윤아씨의 광고 재능기부 기사를 보며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눔으로써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광고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명순 · 인천 남동구

참여방법

* 이메일(E-mail: cckpr@chest.or.kr)로 보내주세요.
* 〈사랑의열매〉를 읽은 후 소감이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 나눔에 대한 재미있고, 감동적인 경험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 〈사랑의열매〉를 가족, 친구 등에게 선물한 인증 사진을 보내주세요.
* 〈사랑의열매〉 기사 및 편집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 보내실 때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독자 참여 사은품

독자의견(3명)에 선정된 분에게는 내용 소개와 함께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사랑의열매 단행본 세트

우산

열매 배지, 열매밴드

USB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매거진은 '사랑의열매' PC·모바일 페이지에서 e-book(전자책)과 PDF 파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하단의 '홍보자료'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www.chest.or.kr